



신재생에너지 활용 대규모 복지사업 선보여 강화 우리마을에 태양광, 지열 전기난방 공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대규모 복지사업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됐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지난 8월 9일 인천 강화군 소재 '우리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복지사업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공기업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정부와 공기업들이 공동 지원해 국내 처음 결실을 맺는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정인지체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시설인 우리마을은 이번 복지사업의 결과로 태양광 50kW, 지열 200RT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7억5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억원, 5개 발전사가 공동으로 5억5000만원, 지역난방공사 5000만원 등 총 15억5000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결과로 우리마을은 전기 소비량의 약 36%를 신재생에

너지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연간 전기요금에 46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의 열 사용량의 3배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연간 1억1504만원의 열요금이 절감되고 고유가로 그간 포기했던 비닐 하우스 농사 등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만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부문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93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지사업은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총 182개소에 183억원이 지원됐으며 그 결과로 연간 전기료 1억원과 난방료 24억원 절감효과와 연간 2만배럴의 원유대체효과, 이산화탄소 9023톤 저감 효과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산자부는 분석했다.